

# '광해'와 다른 '왕이 된 남자', 1인2역처럼 완벽한 차별화



'왕이 된 남자'가 영화와의 똑같은 차별화로 안방극장을 점령했다. 영화 '광해'를 드라마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tvN 월화극 '왕이 된 남자' (극본 김신덕 연출 김희원)가 그야말로 월화극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첫 회부터 5.7%(이하 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로 순항을 예고했던 '왕이 된 남자'는 방송 2회(6.6%)만에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

## 원작보다 풍부하고 확장적인 스토리 등 눈길

며 월화극 판도를 뒤집었다. 3회에 8%를 돌파하던, 8회째 9%를 넘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13회에서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10%를 기록, 두 자릿수 시청률을 얻는데 성공했다. '왕이 된 남자' 방송 전부터 천만 영화 '광해'를 원작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흥행으로 입증된 탄탄한 스토리가 바탕에 있기 때문. 한편 많은 리메이크 작품이 그러하듯,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한 원작과의 비교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왕이 된 남자'는 16부작 미니시리즈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영화와 확연한 차별화를 썼다. 제작발표회 당시 김희원 PD는 "모티브를 가져왔기 때문에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라고 생각한다"며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먼저 원작보다 풍부하고 확장적인 스토리가 눈길을 끌었다. '왕이 된 남자'는 조선의 광해를 기반으로

하되, 시대적 배경을 특정하지 않았다. 대동법, 인조반정, 병과 후금사이 외교적 충돌 등 광해를 그릴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은 겹치지 않지만, 서열인 주호걸(이규환 분)을 등용하고, 동생을 육보인 신이겸(최규진 분)을 반상의 법도를 넘어 처벌하는 등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고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현의 죽음이라는 과격 설정이 원작과 완전히 다른 길을 안내하는 지표가 됐다. 이현의 죽음으로 진짜 왕이 되어야 하는 하신의 성장 스토리가 더욱 밀도있게 그려질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첨가한 입금 캐릭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원작을 벗어나 자유를 얻음으로써 결말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렸다. 원작에 없는 악역 신치수(권혜분)의 존재도 빼 놓을 수 없다. 신치수는 이현을 꼭두각시 삼아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인물로, 자신의 뜻에 반기를 드는 하신이 가짜왕일

을 눈치채고 숨통을 죄어온다. 드라마가 8회만에 이현을 독살로 퇴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치수라는 든든한 반동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다른 권모술수로 극의 말미까지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다. 원작보다 한층 강화된 로맨스도 인기 요인이다. 이현과 달리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하신은 의지할 데 없는 귀 생활에 마음을 담은 중진(이세영 분)의 마음까지 녹인다. 아슬아슬한 숨바꼭질 속에 점차 깊어지는 두 사람의 사랑이 드라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체가 발가벗는 위기를 겪고 더욱 단단해지는 이들의 사랑이 애뜻하고도 설렘다. 이규(김상경 분)와 윤심(정혜영 분)의 오묘한 러브라인도 관심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처럼 '왕이 된 남자'는 스토리와 캐릭터 등의 변화를 통해 리메이크를 넘은 재창조에 성공, 극중 여진구가 1인2역으로 소화한 이현과 하신처럼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왕이 된 남자'가 어떤 결말을 완성할지 궁금해진다.

## '항거: 유관순 이야기' 전지적 유관순 시점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목살하고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폭력, 불의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항거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수감생들. 그들이 필박 속에서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고 외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한다. '복직'이나 '히트'를 위한 하나가 아닌 '좋은 것'을 위해 연대하는 순간이다.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감독

조민호·제작 디제지 플러스)는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유관순이 고향 충청남도 병천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주동하고 서대문 8호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1년을 담은 이야기다. 특히 유관순이 투옥돼 순국한 나이가 17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용기와 의지가 감탄스러울 정도다. 물론 당시의 17살은 지금과는 사회적으로 훨씬 성숙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반골' 소리를 듣다가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아무나 내기 어려울 터. 25명이 생활하던 3평도 체 안 되는 감옥 8호실은 참혹했던 당시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높기조차 힘든 공간 속에서 25명의 투옥자들은 발이 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걷는다. '밥'을 꾸역꾸역 먹는 행위 또한 생명 연장을 위한 결연한 의지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1920년 3월 1일 수감자들은 만세운동 1

## 파일럿 중영 '6자회담', 웃음+공감 잡고 정규 편성 청신호



4주간 이어왔던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파일럿 마무리를 지었다.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출연진들의 화려한 입담으로 큰 웃음을 안겨 정규 편성 가능성을 기대해볼만하다. 관찰예능이 발달하는 요즘, KBS에서 아침까지 선보인 토크쇼 포맷의 6자회담은 8인의 대표 예능인들이 모여 방송가의 이슈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토론하는 이른바 '성역 없는 신(新) 예능토크쇼 프로그램. 이경규, 김용만, 박명수, 장동민, 김희철, 장도연이라는 8인의 개성 넘치는 막강한 캐리커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깨고 회를 거듭할수록 찰떡 호흡을 빛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6자회담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바로 '친

근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 모두의 관심 대상인 '생물학적 수명'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판데믹'은 물론, 방송가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백종원과 인기 유튜버까지 최근 방송계 변화에 대해서도 현역 예능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심도 깊게 다뤘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 현 시대 우리 사회의 현안들과 근접한 주제들을 다루며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토크쇼라고 해서 단순히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크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2회 방송에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멤버들이 직접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영상 촬영,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려 반응을 살펴봤다. 또한, 다른 회차에서는 가짜뉴스의 시초인 악플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실제 본인 기사에 달린 악플에 댓글을 달며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단순한 토크쇼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한 6자회담! 불거리와 흥미로움을 더해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평이다. 8인의 멤버들 이외에도 깜짝 등장하는 게스트들이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했다. 요즘 세대 개그맨이자, 여자친구와 7년째 연애 중인 개그맨 이용진

이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 2030세대의 관심사이기도 한 '현실 결혼'이기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결혼 비용의 핵심은 집이다!", "저희 포대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등의 현실적인 얘기를 털어놓아 멤버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망설임 수밖에 없는 현대판 2030세대의 모습을 보여줘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 앞선 3회 방송에서는 '실시간 핫 이슈 라이브' 코너를 통해 최근 1,5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요인을 다루고 실제 주연배우 진산규와 전화봉화를 진행했다. 영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솔직한 심경까지 'live'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예능대부 이경규, 매끄러운 진행 실력의 김용만, 버럭 호통 형제 박명수와 장동민, 대세 김희철과 장도연, 이들의 만남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이 기대에 부응하듯 그동안 4회 방송을 통해 토크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타공인 대세 예능인 8인이 뽐낸 만큼 거침없는 입담을 뽐낸 것은 물론, 다재다능과 재밌는 주제들로 웃음을 선사해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 매회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6자회담' 정규편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출연진을 역시 "단 4회로만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정할 수 없다"며 진한 아쉬움을 전한 가운데, 과연 6인방이 다시 뭉쳐 다섯 번째 회담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6자회담의 정규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음력 1월 24일)

- ▶**쥐띠**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이다. 1, 3, 5, 12월생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듯이 느긋한 자세가 필요하다. 애정은 짝사랑으로 냉가슴 앓는 격. 한 몸으로 둘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결단이 필요할 때.
- ▶**돼지띠** 마, 리, 시 성씨 매사가 지연되더니 이제야 성사되어 가는 운세. 힘을 내어 더 한층 정열을 다해서 노력함이 좋을 듯. 신경성 질환 조심. 재만은 금물. 금전관계 남, 서쪽 사람에게 부탁하면 성사될 듯하니 용기를 가져라.
- ▶**호랑이띠** 마음이 허락지 않는 외출은 삼가하는 게 좋다. 5, 9, 10월생 그, 지 성씨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구설로 시비가 있을 듯. 나만을 사랑할 줄 알았더니 애정에도 경쟁자가 있겠다. 바, 오, 증 성씨는 고동이 심할 수. 남, 서쪽이 길.
- ▶**개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답답한 심정 누가 알아 줄까. 하늘을 보고 한탄만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전진함이 좋겠다. 대기만성의 때가 올 것이니 낙심은 금물. 투자한 것 때문에 애를 태우는 격. 2, 4, 6월생 검정색 삼가.
- ▶**용띠** 주위에 사람은 많으나 정작 필요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3, 5, 7, 12월생 미혼 여성은 함부로 남을 믿지 말고 남자를 조심함이 좋을 듯. 한번 실패에 만족하라. 두 번째에도 또 올겠는가. 서두르지 말 것. 애정 점점 재충전.
- ▶**닭띠** 조금만 마음을 갖지 말고 매사에 인내가 필요할 때. 경계망동은 금물이다. 그, 사, 오, 프 성씨 북, 동쪽에 힘을 얻을 귀인이 있다. 애정은 어떤지 멀어지는 느낌이 올 것이다. 적극적인 마음을 전달하라. 1, 7, 11월생 원칙 없는 일 생길 수.
- ▶**말띠**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 사람의 협조로 손조롭게 풀릴 듯. 대인관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분수를 지키면 계획에 차질이 없겠다. 자신이 부린 것은 자신이 거머야 할 때. 오, 지, 증 성씨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격.
- ▶**사슴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경양으로 성실하게 뜻을 지켜나간다면 저절로 운이 열릴 것이다. 그, 리, 시 성씨는 하는 일에 방해자가 생겨 힘들 듯. 오, 프, 증 성씨를 잡아 함께 하라. 운이 열린다. 서두르지 말 것. 급히 먹은 밥 체할라.
- ▶**원숭이띠** 무엇든지 독점하려는 욕심을 삼가고 상부상조 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주변 협조가 필요한 운이니 유대관계를 잘 맺어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듯. 집은 안개 속에서 그님을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고 속만 타는구나. 2, 7, 8월생 자신을 다스려라.
- ▶**닭띠** 지극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매사가 손조롭게 풀리며 뜻하지 않게 귀인이 돕는 격이다. 그, 지, 증 성씨 작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 함께 하자는 사람이 나타난다. 1, 7, 9월생을 잡아 조연 받을 것. 북, 서쪽이 길.
- ▶**개띠** 그물을 쳐 놓아도 고기는 잡히지 않는 격. 자신을 알고 순리대로 행하면 막힘없이 더욱 길하겠다. 문서 관계를 철저히 하고 보장은 금물. 그, 바, 증 성씨는 있는 자리에서 옮겨야만 고기가 잡힌다. 금전 관계로 애매운 격.
- ▶**돼지띠** 주어진 일에만 전념할 때다. 1, 5, 12월생 사적인 일에 끼여들면 관계수가 열려난다. 자신의 실수를 차리며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대처하라. 임신이 늦어져 애태우는 여성에게는 길일.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야 할 때. 용기를 주라.